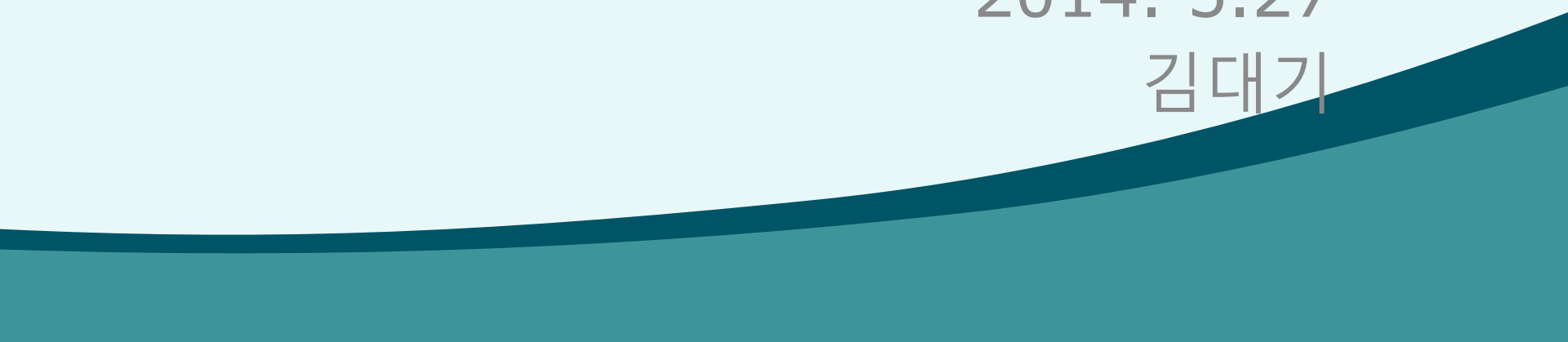


한국경제 성공신화 지속가능한가?

2014. 5.27

김대기





□ 낙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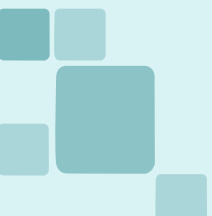
위기 아닌 적이 없었다. 모두 극복.
금모우기등 위기대응 탁월

□ 비관론

한국, 단기충격에는 강하나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에 약하다

□ **1986-88년 호황기**

아시아 네 마리 용 → 10년후 외환위기



< 목차 >

I. 한국경제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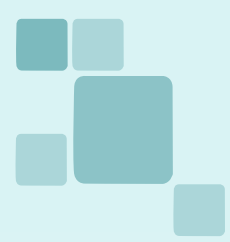
II. 향후 위험요인

1. 반갑지 않은 세계경제 환경
2. 처음으로 겪는 재앙: 인구 고령화
3. 내수위주 경제의 「허」와 「실」
4. 국가운영 시스템의 변화
5. 경제민주화와 반기업정서

III. 반면교사의 나라: 일본

IV. Implications





I. 한국경제 현 주소

□ 50년전 1인당 소득 80불 → 2013년 24,000불

□ 인구 5천만명 이상, 소득 2만불이상: 세계 7대국
수출 세계 7위, 무역 1조불넘는 세계 8대 교역대국
UAE 원전 : 佛, 日 제치고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2010년 G20정상회의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녹색기후기금(GCF), 독일에 이김

□ 자원이 없으면서 남을 약탈하지 않으면서...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이상

□ 라스무센 前 덴마크총리: “한국은 백조, 한국인만 미
운오리로 생각 → 거울 선물하고 싶다”

성공신화의 원인

□ 자식만은 교육: 훌륭한 인적자원

□ 대외개방 전략 : 투자유치, 수출지향

당시 민족주의적 자립경제가 이상

종속이론 난무: 해외자본 = 매판자본

남북한간 전략차이가 운명결정

□ 민간의 역량을 키웠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비료, 항공, 통신

→ 민간 창의 극대화로 고속성장, but 경제 불균형

Transit Economy 들의 가장 큰 애로: 정치적 특혜 공방

아르헨티나, 러시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서문(1962.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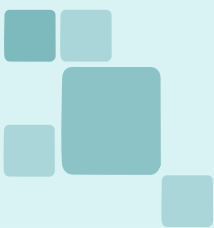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체제의 원칙하에 국민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이 가미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확립" 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

◆내각수반 송요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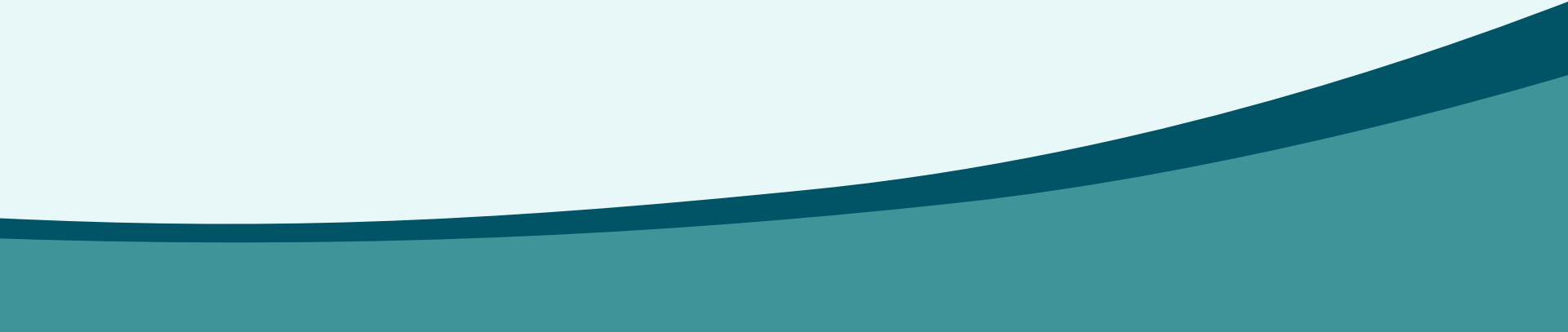
"공적부문을 중심으로한 중요산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이것이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도록 짚다"고 함으로써 정책방향을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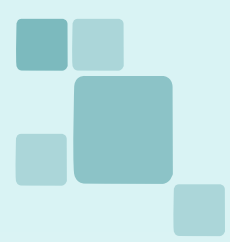
□ 운이 좋았다

- 60-70년대 여건: 2차대전이후 미국·유럽 베이붐 세대
자유무역기조 → 만들면 팔리는 시대
 - 일본: 1960년대 10.5%로 고도성장
 - 한국: 1970년대는 10.3%의 성장 (60-90년 평균 8.8%)
 - 마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설, 59년 주석사임
50년대 사회주의 집단농장체제 실패 → 수천만명 아사
유소기, 등소평, 농지개혁 시동 → 마오 1966년 문화혁명
 - 1976년 마오 사망이후 등소평 재등장: 시장경제 요소 도입
"누구든 빨리 부자되어라, 흑묘백묘론.."
70-80년대: 9%성장, 2000년대 10%대 성장
- ※ 마오 평가: 관공서 사진, 위안화 모델



II. 향후 위험요인 분석





1. 반갑지 않은

세계경제 환경



□ 미국, 유럽, 일본등 : 빠른 속도 고령화

청장년 7-8명에 노인 1명 → 2030년 3명에 1명
→이제 세계는 저성장 모드

□ 재정위기의 여파

① 자유 무역기조 쇠퇴

글로벌 금융, 재정위기의 근원: 세계 교역 불균형
중국, 일본등 무역흑자가 미국, 유럽 국채 구입

※ 환율전쟁

② 선진국 부채 줄이기 → 세계 경제회복에 걸림돌

□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가능?

1인당 소득 5,000불, 임금상승, 금융부실, 과잉설비,
부동산경기 둔화

□ **ASEAN** 국가들: 탄탄한 경제 기반 없는 정치민주화
민주화 진통, 임금상승, 양적완화 중단시 위축

※ 2013년 수출비중

중국 26%, 아세안 15%, 미국 11%, EU 9%, 일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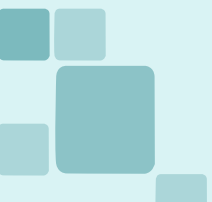
□ **일본** 아베노믹스 등장

엔화절하, 2% 인플레이션

일본 수출기업 경쟁력 급속히 회복

경제 살아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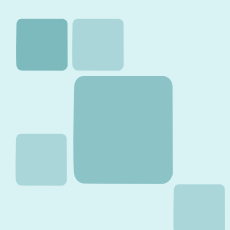
※ 2007년 (연평균): 118엔/달러, 790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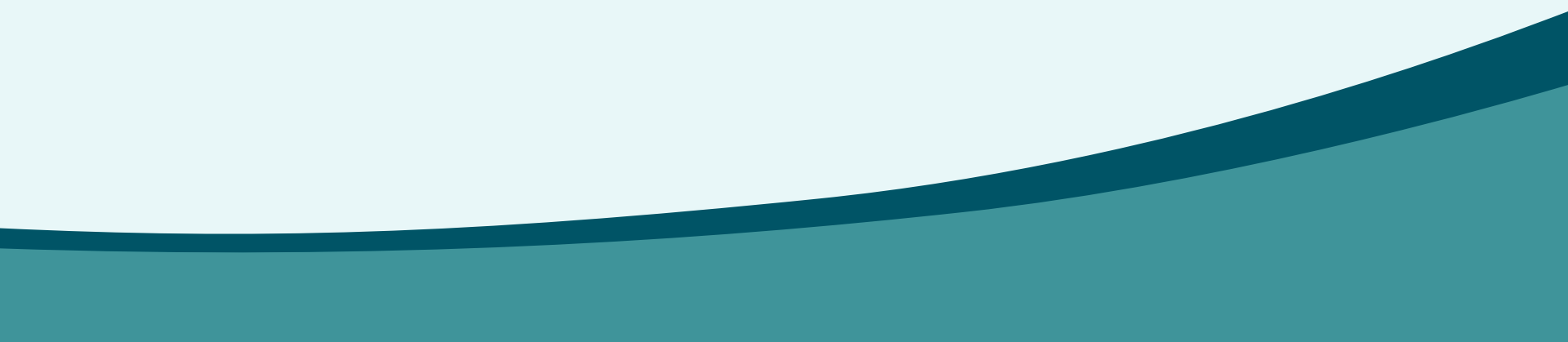
□ **유럽:** 느린속도의 경기회복
국가부채 줄이기

□ **미국:**

- ① 경기회복 vs 양적완화 정책 중단
- ② 셰일가스: 세계 에너지시장 개벽
중동, 러시아등 산유국 타격예상
미국 에너지 자립
- ③ 제조업 경쟁력 급상승:
석유화학 1,000억불 이상 투자
U-turn 기업 증가
→ 세계경제, 한국에 유리? 불리?



2. 처음으로 겪는 재앙: 인구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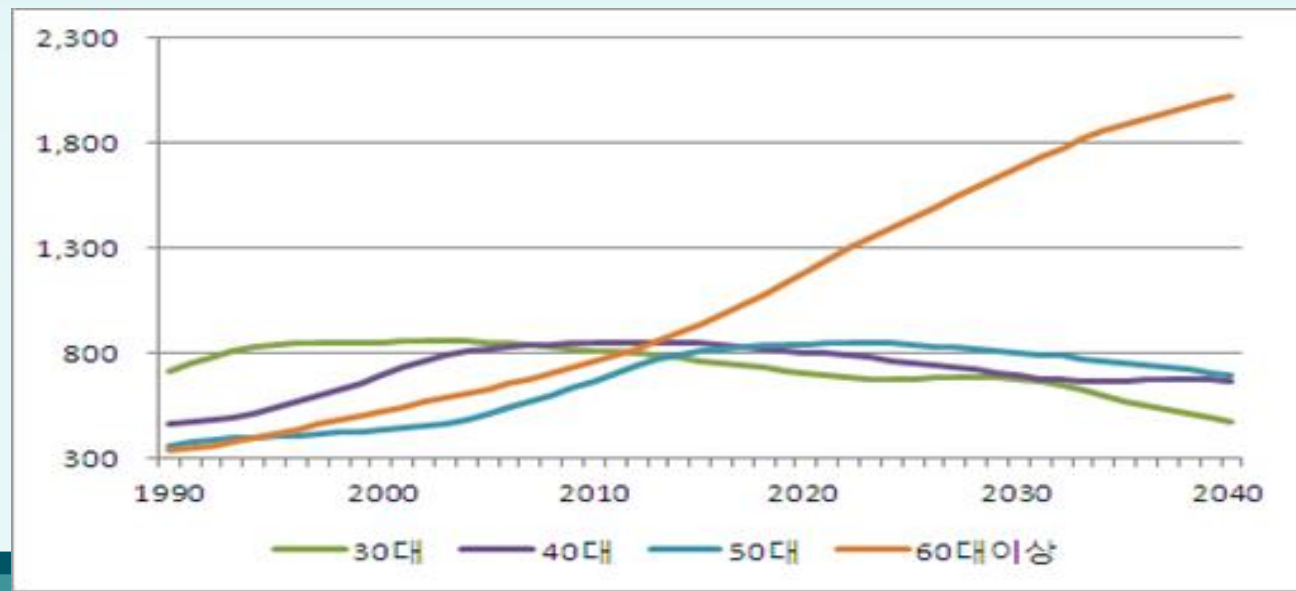


□ 30-40대: 2006년부터 감소

2012부터 40대, 2024부터 50대 인구감소

□ 15-64세 생산가능인구 2016년부터 감소

주요 연령대별 인구규모 추이 (단위 : 만명)



□ 단순 고령화가 아닌 빈곤노인 확대

자살율: 인구 10만명당 31명, OECD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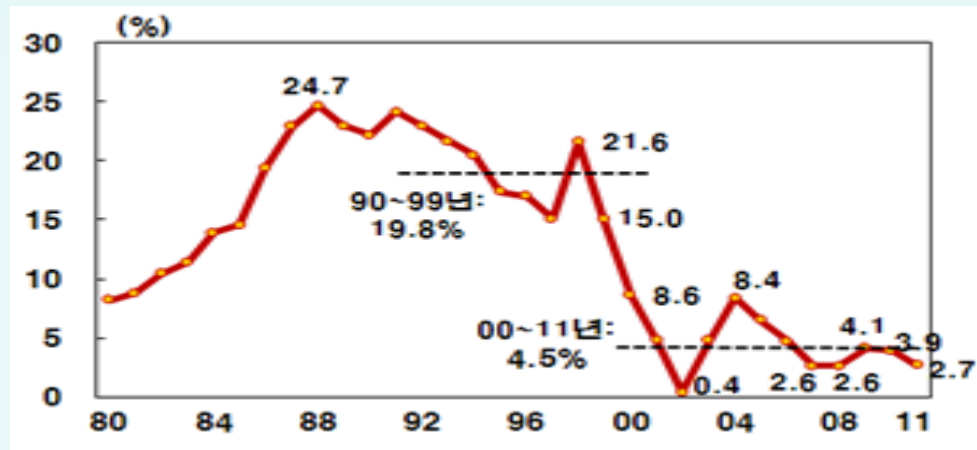
노인 자살율: 70대가 84명, 80대는 무려 123명

가계 저축율 : 2012년 2.7% vs 독일, 프랑스 10%, 미국 5%

자식 과잉 투자, 주거비 부담 가중, 사회서비스 미비

부모부양 (1970년대 평균수명이 60세 → 8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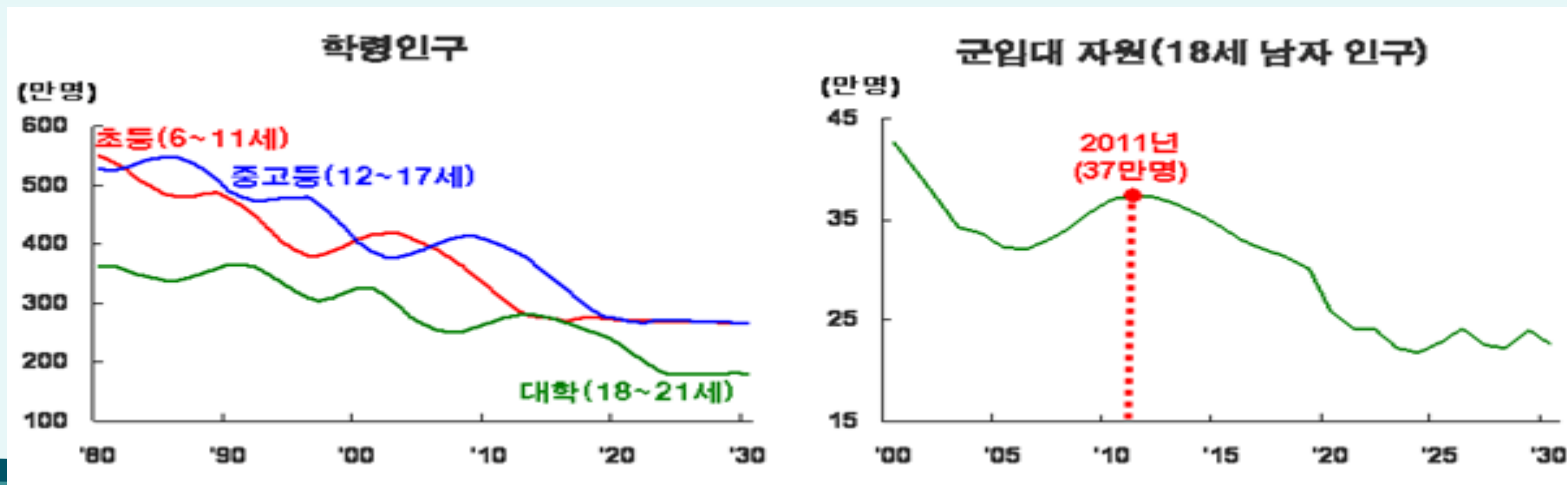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



□ 다가올 고령사회의 자화상

- 15년후 부양 노인: 현재 청장년 7명당 1명→3명당 1명
- 저성장+노인복지 = 국가부채 폭증→ 20-30세 미래세대 비극
- 군대, 대학, 종교시설등 유지 불가능
→ 사회 구석구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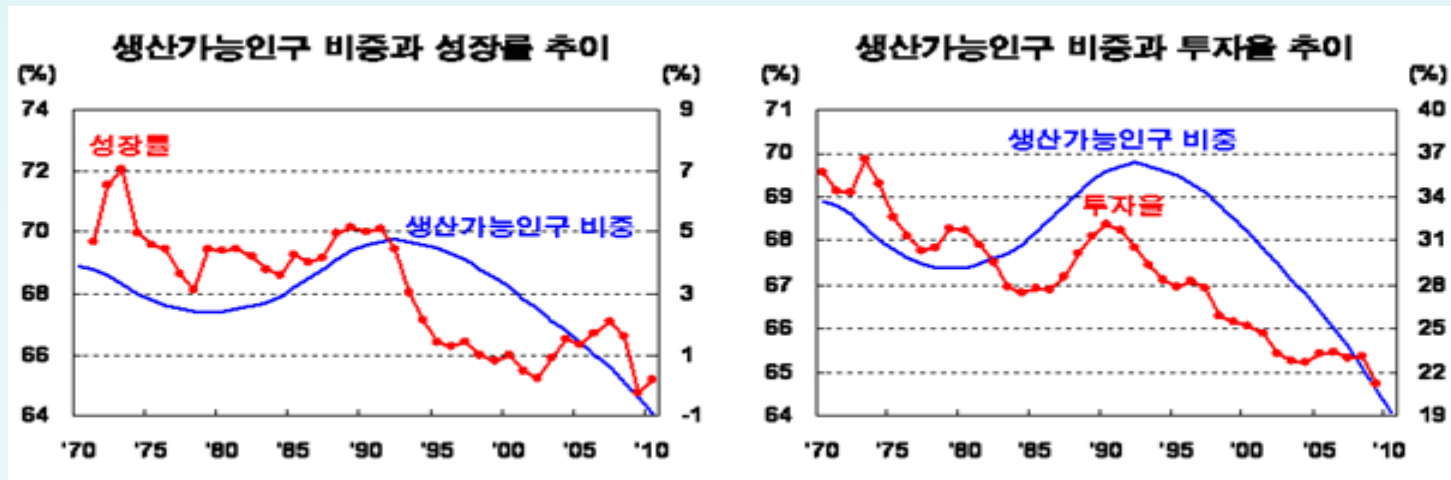
학령인구와 군입대 자원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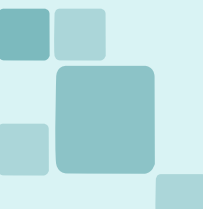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1955년-63년생 은퇴

- 우리사회 고도성장을 이룩시킨 세대
→ **4% 이상** 성장은 꿈도 꾸지 말아야..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성장,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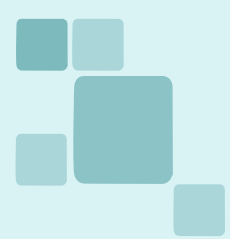


주: 성장률과 투자율은 5년이동 평균치임



□ 앞으로 10년 이내 인구 변화

- 50대 인구도 감소, 노인 20%
 -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16년
 - 35-55세 핵심인구 160만명 감소
 - 대학입학연령 100만명 감소
-
- ① 앞으로 유망산업: 대학교수? 방위산업? 자산운영?
신중년 시대? 실버전화기, 실버 전원주택단지
 - ② 새만금 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세종시
 - ③ 내수위축, 서비스산업 지지부진 → 기회는 해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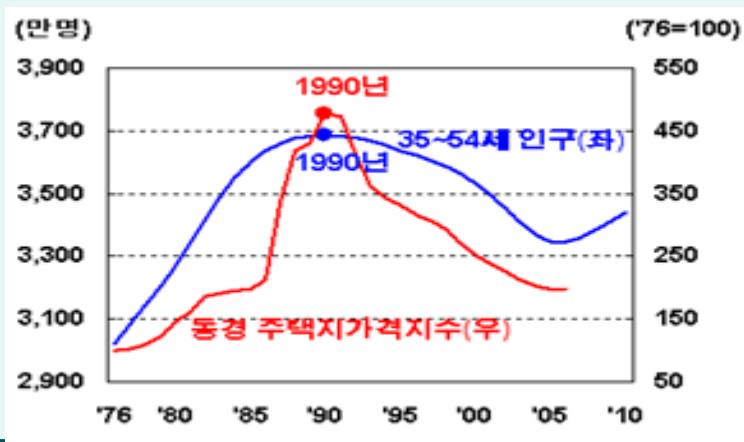
3. 내수위주 경제의 「허」와 「실」

□ 수출비중 높아 양극화 주범 → 내수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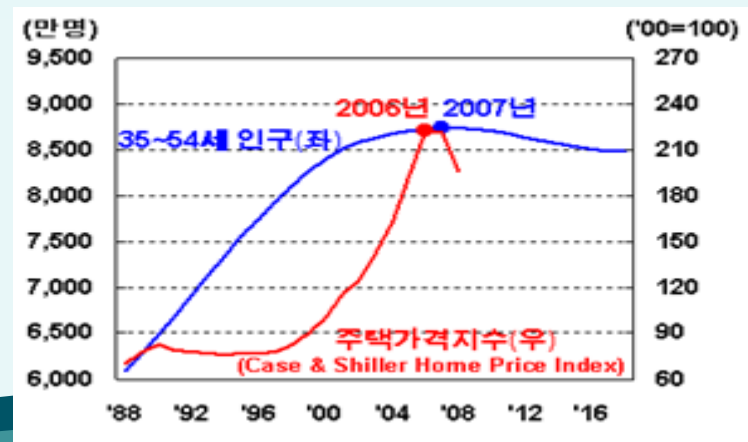
□ 그러나,

- 60대 이상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40대 가구주의 56%
- 가계부채 1,000조원, 낮은 저축율, 빈곤노인
- 35-55세 핵심 인구감축으로 주택경기 위축
- 도로등 건설투자도 대부분 마무리

<일본의 경우>



< 미국의 경우 >



□ 유일한 돌파구 서비스 산업:
“국민정서법에 막혀 한치도 못나간다”

- 영리 의료법인 설립 불가능/ 의료관광
- 외국인 학교 설립 불가능/ 유학대체, 아시아 중심지
-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중국 300만명 (3%)
안국동 외국인 전용호텔 불허
-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후심사제 → 사전심사제
- 중국 여객선 **공해상 카지노**
- **요트산업**, 여의도에서 아라뱃길 통해 서해바다로

학교보건법 규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기회는 해외에

- 제2의 중동붐: 자스민 혁명

사우디: 2010년부터 5년간 117개 병원, 750개 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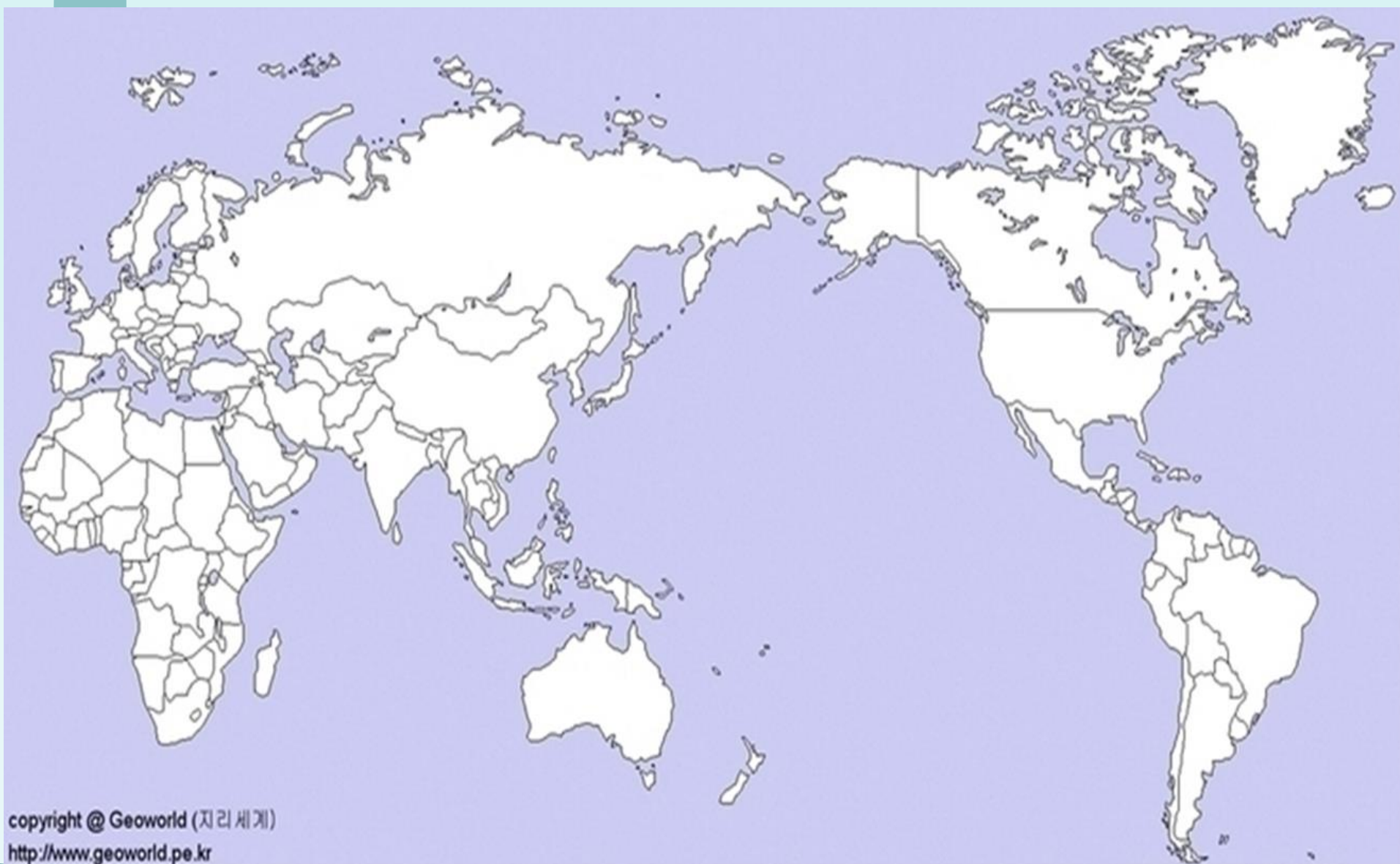
UAE 원전: 건설 200억불, 운영 200억불

한국 교민 사업가

<표> 과거 중동붐과 제2의 중동붐과의 차이

	70년대 1차 중동붐	2000년대 2차 중동붐
사업분야	도로등 단순 인프라 건설	플랜트, 주택, 병원, 방위산업, IT등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인력	건설 기능직 위주	고학력 전문직
생활여건	열악	매우 양호

-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이티오피아, 콩고, 남미국가들: **한국기업 보내달라**
⇒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



□ **히든 챔피언' 저자 독일 헤르만 지몬 회장**

“ 실력 우수한 한국 中企, 국내 대기업 하도급업체로 남는 길 택해”

□ **벤처펀드 DFJ 드레이퍼 회장**

“ 한국벤처 기본 탄탄, 기술 우수,글로벌 마인드 부족, 진흙속의 진주”

□ **중국**

2013년 독일 히든 챔피언 25개, 전체 M&A 228건(약700억불)
아프리카 외교 최우선, 자원개발 계속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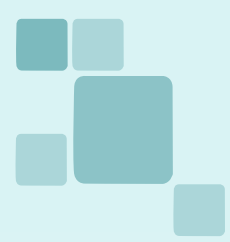
원화 강세 해외 M&A 빈약, 2013 전체 M&A 54건(약 60억불)
2008-2012년 자원개발 사업 매각
※ 세계 해운, 제약, 자동차, 철강 합종연횡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 밑문을 터라

EBS





4. 국가 운영시스템의 변화

□ 경제권력: 관료 → 정치권

- 주택경기 활성화, 민영화, 서비스업 발전 → 법 개정사항
- 우리 사회의 두뇌역할: 국회의원
국가 < 특정이익단체, 장기 < 단기, 쓴약 < 달콤한 과자

□ 무기력 관료

- 변.. 신드롬: 리스크 있는 일 안한다.
 - 2008년 3만원 넘던 쌍용건설 주식 → 2013년 휴지
 - 우리및 기업은행 매각, 저축은행 영업정지, 부실대출 수사
 - 미국 금융위기시 시티은행, AIG 2-4년내 민영화

□ 국가 시스템

- 세종시, 관피아
- 국회선진화 법

□ 국가의 미래가 방치

- 과거 5개년 계획
관료, 학자, 연구소, 언론, 산업계등 참여
관련분야의 미래에 대해 다같이 고민하는 기회
- 현재 『○○정부 정책과제』
공약을 토대로 인수위에서 확정, 공감대 부족
- 헬기, 차세대전투기 개발, 영남권 신공항, 달 탐사선,
경기도 GTX,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 대형국책사업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 5년마다 정책 폐기와 신설:
지역균형, 4대강, 녹색성장...



□ 정치우위의 국정운영 ⇒ 복지포퐁리즘

- 2012년 한국의 총선과 대선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2배
- 영국 : 2012년 등록금 3배인상
- 노르웨이: 63년생이하 기초연금 폐지
- 스웨덴: 1998년 기초연금 폐지,
연금지급 자동축소, 상속세 폐지

<참고> 복지 포퓰리즘 경쟁

□ 재정이 파탄나면 : 독일

- 1차대전 패배
주변국 320억불 배상금(독일 GNP 20년분)
- 세입부족 → 통화발행 → 1913년- 23년 물가 100조%
- 저축한 사람보다 맥주 사먹은 사람이 더 유리
- 화폐단위: 10조 마르크 짜리 지폐/ 한면만 인쇄
- 환율: 달러당 4.2 → 4.2조 마르크
- 당시 유태인계 은행 호황, 히틀러 등장

□ 재정이 파탄나면 : 러시아

- 1980년대 레이건과 군비경쟁 → 소련붕괴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허무하게 종료
- 러시아 경제 붕괴
 - 루블화 폭락, 92년 인플레이션은 2,000%
 - 1994년 화폐개혁, 금융자산 휴지, 98년 디폴트
 - 국가파산, 예금동결과 개인금고 재산 몰수
- 해외 자산가 유리, 과학자들 해외취업, 서민만 고통
- 1990년대 중반 국내 술집
⇒ 이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회복

□ 재정이 파탄나면 : 남미와 남유럽국가들

독일, 러시아의 국가파산: 전쟁

남미, 남유럽: 복지 포퓰리즘

< 그리스 >

- 1980년까지 일본보다 우량국가
- 1981년 사회당 집권, 복지남발, 우파정당 가세
- 연금: 평균임금의 95% (독일 37%, 영국 30%)
- 일자리 : 공무원 증원/ 긴축반대 데모 공무원
- 유로화 사용, 낮은 금리로 풍부한 자금 유입

※ 최근 우크라이나

<참고> 우리나라 국채는 안전한가?

□ 2013년: 480조원, GDP대비 36%수준

일본 230%, 미국 100%, 독일, 영국, 프랑스등 80-100%,
재정위기 그리스, 이태리등 100%초과 150%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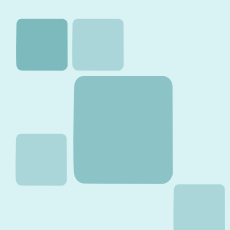
□ 고려사항

- ① 통일
- ② 비국제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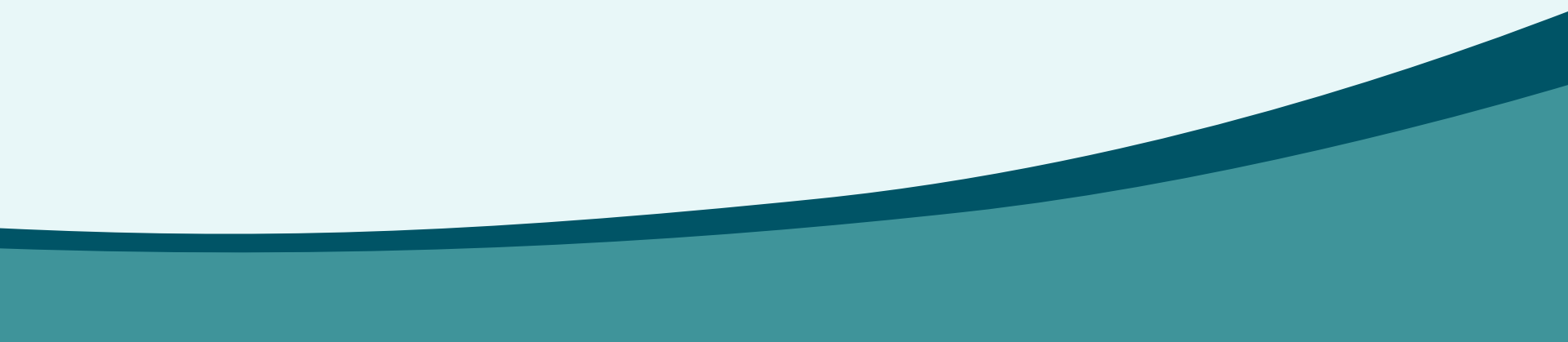
□ 낮은 복지 수준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 사회복지지출/ GDP(%), 2009년 OECD
한국 7.6%, 미국 16%, 일본 19%, 유럽 30%이상

⇒ 증세없는 복지경쟁, 국가파탄
세상에 무상은 없다.



5.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





□ 반기업 정서: 양극화 + 자업자득

“이익이 나도 쥐어짠다”,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

“잘하는 중소기업 인력, 기술 탈취한다”

“콩나물, 두부, 고추장, 빵집.. 골목상권에 진입한다”

→ 기업인: 구속수사/ 배임죄

□ 경제민주화 대두

“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통상임금확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화, 해고요건 강화 등 ”

→ 하나 하나가 매우 큰 영향, 신중히 추진 필요

1987년 1차 경제민주화

① 근로자 희생 보상차원:

- 노사분규 → **10년간 임금 4배**
- 경공업 몰락, 해외 설비이전

② 경제자유화:

- 대기업 영역확대 → 부채과다
삼성, 쌍용자동차, 석유화학,
항공산업

⇒ **1997년 외환위기 발생,**
국민모두 피해자

금번 2차 경제민주화

① 대기업의 Exodus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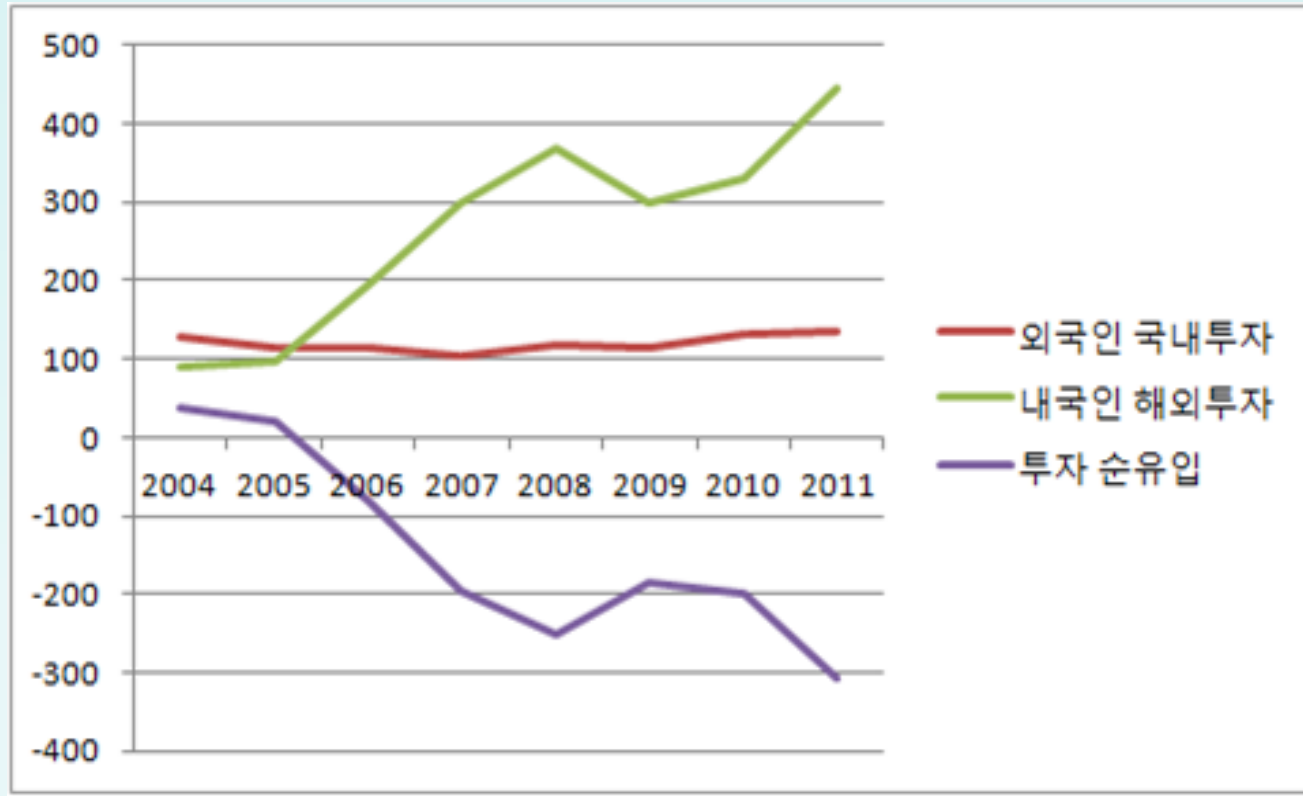
- 현대차 국내 생산성,
미국공장의 60%수준
해외생산: 2004년 13.4% →
2012년 50%초과

- 삼성 휴대폰, 해외생산
2010년 16% → 12년 80%

② 경제민주화 Exodus 가속화

⇒ **서민과 중소기업이 피해자**

외국인 국내투자과 내국인 해외투자 추이(억불)



□ 대기업들 “이익극대화가 나쁘냐? 억울하다” → 자본주의가 바뀐다

□ “박애 자본주의 (**Philanthrocapitalism**)” Matthew Bishop

신자유주의, 양극화, 탐욕으로 자본주의 위기

→ 가진 사람들의 양보와 기부, 자선사업이 살릴 수 있다

카네기, 록펠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 한국부자 “부럽지만 존경받지는 못해”

□ 반기업 정서는 안된다: 결국 모든 기업에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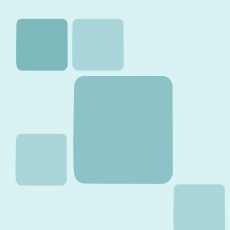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안가는 나라

클린턴 노동장관 Robert Reich,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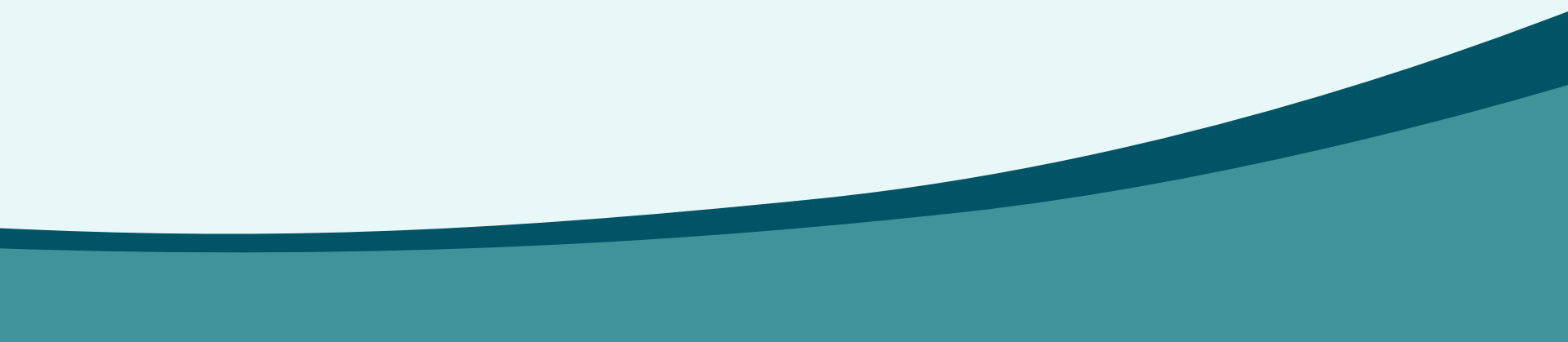
양극화가 경제위기 주범: “옆집 소를 죽여주세요”

□ 사회적 대타협 필요:

대기업은 대기업 답게 vs 법과 제도보다는 기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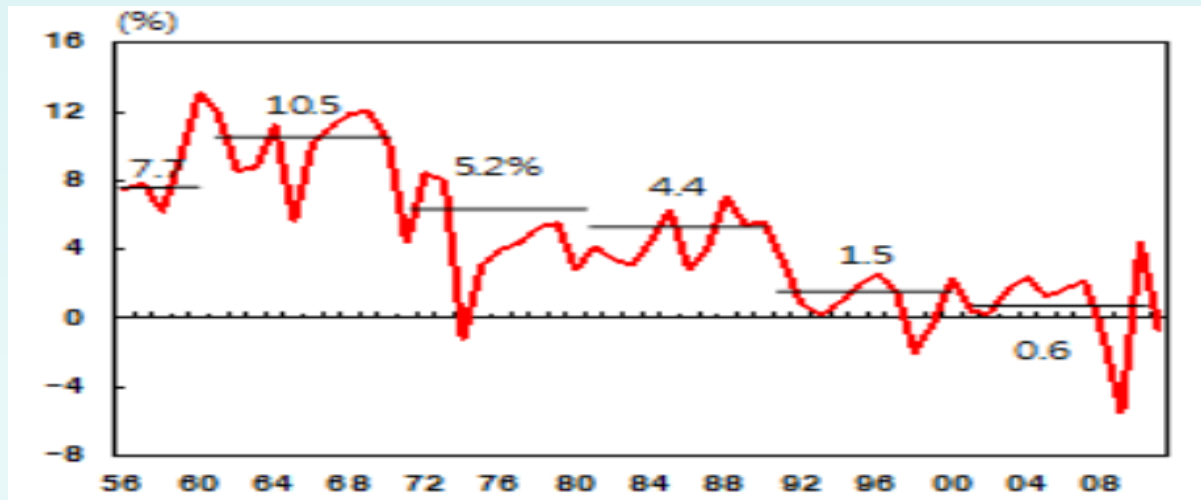
III. 반면교사의 나라: 일본



1. 회복되지 않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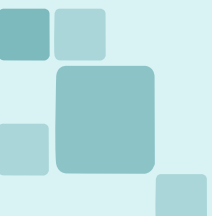
성장률: 2000년대이후 **1% 미만**

< 성장률 추이 >



재정수입: (90년)64조 → (10년)48조엔, **25% 감소**

민간임금: 97년이후 **18% 감소**, 양극화 사상 최대

- 
- 재정 절반 국채발행: 2011년 56조엔
 - 국가채무 GDP의 230% 세계최고

※ 짐바브웨 2007년 GDP의 220% 파산

※ 일본: 금리 0%, 국내소화 94%

- 내수 공동화:

“해외진출 기업은 살았다”

2011년 일본 5대 상사: 이익배당금 사상최대

2012년 토요타 세계 1위 탈환

- 2011년 무역수지: 1981년이후 처음 적자

2. 원인

- 90년대초 **잃어버린 10년** : 구조조정 실패
- 10년, 20년 지나면서 더 악화, 부채만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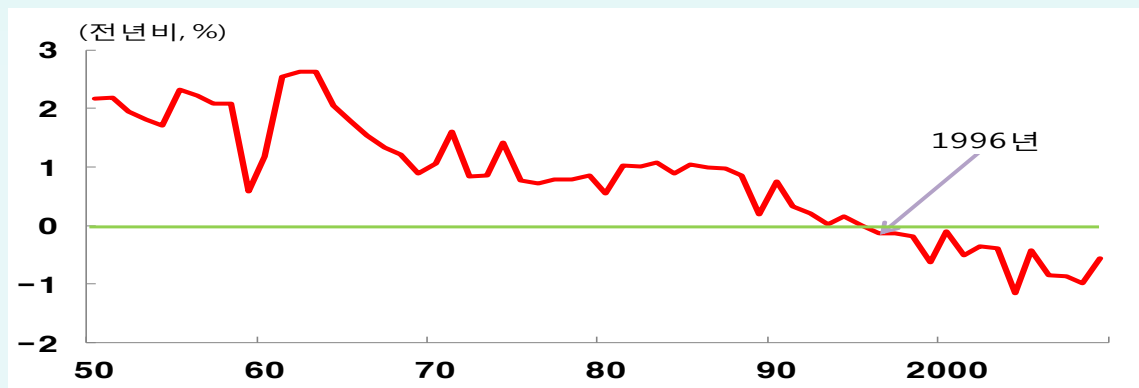
① 인구구조의 변화

② 관료중심 일본주식회사 → **정치우위** → 국가부채 급증

이명박대통령 5년: **일본 총리 6명**

국가부채 GDP 비율: (90) 68 → (00년) 142 → (10년) 230%

< 생산가능인구 추이 >



3. 아베노믹스 감상법

□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 엔저

- ① 수출,기업이익↑ → 일자리, 임금↑ → 세금↑ → 국채 ↓
- ② 2% 인플레이션, 디플레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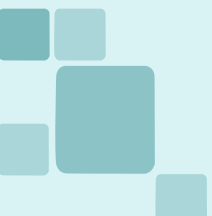
□ 제약요인

① **인플레 2% → 국채금리 2%**

- 금리 2% 상승시 이자부담?
※ 우리나라 국방비 비중

⇒ 세입의 60%이상을 국채로 보전?

- 금리 상승시 금융기관 자산가치 폭락



② 현재 국채의 94% 국내 소화

- 매년 50-60조엔 국채 소화 한계
-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국내저축 여력감소
- 10년이상 장기채 비중: 80년 80%→ 30%

③ 엔저 → 인플레이션 내수기업, 서민 고통가중 2011년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

※ 수출/GDP: 한국 50%, 일본 14%, 중국 26%, 미국 10%



④ 소비세: (금년) 5→8%, (내년) 8→10%
양적완화 효과 상쇄

☞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임금이 올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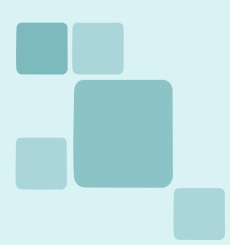
- 임금이 빨리 오르지 않으면 인플레이와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둔화 → 세수증가 공염불
- 금리인상으로 국가 빚 더 증가

※ 경제평론가 아사이 다카시「일본파산」책

“ 어느 순간 국내소화에도 한계, 2015년 파산 ”

4.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가?

- 고령화
- 경제권력의 정치권 이동: 무소불위 국회
- 복지공약 남발 시동
- 내수 공동화 : Exodus 시작
- 중국의 추격
핵무기, 전투기, 고속철도, 로켓, 항공모함,
부품소재 수출1위



IV. Implications

“ 성공한 경제 vs 실패한 경제 ”

“ 성공한 국가 vs 실패한 국가 ”



3.5m, 10일간 5,000km, 40년



1초에 60번 날개짓, 4년

< 지속적인 성공신화를 위해서 >

- **국가재정을 지키자:**
포퓰리즘 막자, 경제예산 축소,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 **해외로 나가자:**
제2 중동붐, 청년실업 해소
- **어설픈 경제민주화 경계:**
사회적 대타협, 전경련 역할, 배임죄
- **국가 미래전략:** 출연연구기관 역할강화
- **경제안전판을 강화하자:** 경제대통령 성공 vs 실패
금융감독원 정부부처화, 산은 원위치
- **관료를 움직이자:**
최고위층 관심, 공무원봉급, 감사원 기능
- **이민을 받아들이자:**
강하구, 갯벌, 난류와 한류, 르네쌍스의 공통점



감사합니다